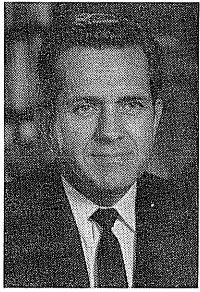




성도의 벗 4

1971



영감의 메시지

보이드케이 파커
십이사도 정원회

소위 반항의 연령이라고 하는 층의 젊은이들이 더러 가족이나 주변과의 유대를 스스로 끊고 인생의 바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른 항로를 가기도 하고 타야할 배를 타기도 하나 엉뚱한 곳에서 고기잡이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못된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층도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한 21:6)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대답이 주어진다든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든 젊은이 여러분은 이를 묵살해 버리거나 그 가능성을 웃어 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구하라”는 말씀은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의 사정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위의 이야기를 인정할 만큼은 정직합니다.

교회에 참석도 하였고 종교생활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그저 결단 맛을 본 것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온전한 내용은 오직 한곳에서만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그 한곳을 의궤오로만 찾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곳에서 고기잡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제로 생명수를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야야 이루어집니다. 강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의적인 요구가 있을 때 단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기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시도했던 것보다 천배나 더 노력해야 하며 더욱 깊이 탐구하고 더 큰 용기를 가지며 더욱 철저한 자제력으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두를 시도한 뒤에야 약속이 주어집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 (요한 1:9-10)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4월 1일
통권 제69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제 7 권 제 4 호 순 서 1971년 4월호

■ 권두언 : 대관장단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헤롤드 비이 리, 엔 엘돈 태너	1
요셉 스미스—감사 비이 에이치 로버트스	5

1830년 4월 6일—교회가 조직된 날 도일 엘 그린

용기의 밤 마저리 에스 겐년	25
훌륭한 신앙 루실 시이 리딩	27
엘마 레이 리스 맥케이 1877—1970	28
돌프 비이 아이색슨 1898—1970	29
■ 선교부장 메시지 : 찬송가—우리 영혼의 양식 서 현보	30
■ 내외 소식	31

표지 설명 : 본문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윌리엄 유티커 형제가 그린 “교회가 조직된 날”의 삽화 중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확인하는 요셉과 올리버”의 그림을 표지에 실었다. 도일 엘 그린 이 기사를 썼다.

대관장단 메시지

대 관 장 죠셉 필딩 스미스

●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전세계의 교회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 중에 특히 가족의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실상 교회 조직은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이 승영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롤드 비이 리
대관장단 제일보좌



죠펠 필딩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단 제일보좌

복음에 대한 가족의 유대와 가족의 헌신하는 마음이 지극히 중요한 까닭에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 있어서 세상의 재앙은 가정의 파괴를 무엇보다도 노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고귀하고 선한 바탕이 되는 가정을 노리는 마수는 사면에 뻗혀져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막겠다는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노력이 차츰 말일성도들에게도 침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자녀를 들 이상 갖는 부모에게 어떤 벌을 가하자는 데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통한 낙태의 자유화를 옹호하는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생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표시입니다.

불법적인 약물의 남용과 약의 과잉 사용으로 가족은 유리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젊은이들의 권위 경멸의 풍조는 가정에서의 불순종 내지는 경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저명한 잡지는 “모권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여성 자유화 운동이란 별난 움직임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개인을 가정의 뿌리에서 뽑아버리겠다는 악마의 시도가 격증되면서 가정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일성도 부모들의 뜻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가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능은 가족 전원이 한결같이 완전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헌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기심에 대한 요구를 극복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바치는 만큼의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가정을 위하여 최선의 창의적 정력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보람 없는 관습에서 비롯된 생활입니까? 가정의 승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은 함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움고자 교회가 편 몇 가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5년 이래 교회는 가정 복음 교육 공과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외면하는 부모는 자식들의 장래를 커다란 도박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성도의 벗만 하더라도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다 주님과 가깝게 살게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읽기만 한다면 성도의 벗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월 이 잡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한 간증을 기르게 할 것이며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벗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활동과 기사가 실리는 만큼 교회의 젊은이를 고무시키고 저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는 참으로 큰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련과 유혹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사랑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구별해 주시고 승영에 들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부대관장 헤롤드 비이 리

● 나는 특별히 아론 신권을 소유한 교회의 청소년과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에 속한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생의 연령층에 있는 젊은 어른들을 위하여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접하여 살고 있는 시간이 순간적이라는 이야기가 혹 낮설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이며, 생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시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므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사명감을 갖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과거보다도 우리들의 조상이 지었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서 빼어 버리려는 유혹이 요란하게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에베소서 6:11-12)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싸움은 비행기나 총이나 폭탄으로 무장한 인간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며, 우리를 암흑의 세계로 밀어 넣으려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과 그의 권속이 표적으로 노리는 우리의 사지를 무장하는 갑옷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 사탄은 갑옷으로 무장하려는 우리의 사지의 약점을 노려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14-15, 17)

여러분이 덕과 생명의 힘을 지키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이 세상과 영원을 연결하는 신전에서의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품행을 지킨다는 가슴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로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며 매일매일 자기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속된 삶의 요구로 지워지는 부담으로 피곤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판단은 젊음의 어리석음으로 하여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꿈은 분명하며 정신은 맑으며 몸은 강건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굳건해야 합니다. 준비는 성공의 길이며 “영원한 경계는 안전의 보상이

니다.”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투쟁하거나간에 승리의 파도는 준비하는 자에게 안겨집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선생의 갑옷과 갑주를 봅시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 위에 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예지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사령부입니다. 사람의 됴됨이는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결정되므로 우리는 머리를 적으로부터 잘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편 23:7 참조)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의 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살게 해 주는 영원한 빛을 쟁취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지상의 목표로서 겨누고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생각과 결정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도전해야 하겠습니까.

현재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훌륭한 시간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이 땅에 있으며 값을 기쁘게 지불하겠다는 자에게는 온갖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격동과 부도덕, 불결, 전쟁 그리고 사악한 근대 생활 속에 실망과 낙담의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젊은 형제 자매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며 여러분에게 굳건히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만끽하되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신 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간증과 이곳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요구를 방해하는 온갖 것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생애에서의 삶을 가장 값 있게 살아 영원을 두고 축복을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빌어 간구합니다. 아멘. ○

부대관장 엔 엘돈 태너

● 소년 소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간을 달에 상륙시키는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그런 광경을 천연색 텔레비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본대거나 단추 하나로 금방 따뜻한 열이나 빛이나 혹은 시원한 공기를 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읍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 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누구고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은 더러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위에 이야기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출생을 가능케 하셨으며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도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알고 그에 관한 많은 다른 것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더욱 그를 알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른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 보다도 더욱 그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 1서 4:7)

선지자 몰몬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찬탄하여졌으며 아이들이 모두 나와 같고 내가 어린 아이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모로나이 8:17)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너무 위대한 까닭에 우리들로서는 감히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과 흡사한 사랑이 있다면 야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천국의 집에서 부모님의 집에도 착했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께 커다란 기쁨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더욱 커지며 그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허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안된다는 대답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탁이 어딘가 현명치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다른 식구들에게 정당치 않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상으로 받습니다. 선지자 요셉 스미스가 살아 계실 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요셉 스미스께 고난과 어려움이 쌓인 중에도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의 원리를 지키기 때문이요.나는 세상을 위하여...선한 마음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테저렛 출판사 1968. 313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와 친구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말하므로서 말을 배우고, 공부하므로서 공부하기를 배우며, 달림으로서 달리를 배우는다고. 그러니 사랑하므로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일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전하여 주므로서 우리의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하오”라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예의와 친절과 깊은 사려로서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늘에 속한 작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현재는 놀라운 시대입니다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청소년 소녀들에게는 문제점도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가를 잊게 하려는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산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

요셉 스미스 감사

비이 에이치 로벗스

●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전 3:11-13)

요셉 스미스가 다른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저주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나 그가 이 경륜의 시대에 부르짖은 내용에는 가장 높히 받들어 올린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리와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이외의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으며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는 일의 본보기로 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르짖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요 뜻이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의 작업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잡초나 검불이나 마른 풀잎이 아니요 황금과 은과 값진 돌이며—가장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모두 불의 시험을 받습니다. 요셉의 사업도 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종교와 이념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파와 이념의 계보가 여기저기서 솟아났습니다. 이를테면 퀘이커교, 영감교, 오웬교(로버트 오웬을 창시자로 하는 교통을 주로 삼는 기독교파) 캠벨

교, 밀러교 등등 더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못박아 놓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파는 거의 순간적으로 기울어져 버렸거나 현재는 종교 철학계에서 그 존재가 지극히 미미하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소위 “물론교”만이 이런 세력 속에서 지금까지 그 원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굳림해 왔습니다. 물론교의 생존은 이것이 참되고 바르다는 사실을 역역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때 스스로를 변명하신 그 말씀을 요셉 스미스를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아도 그는 행하였으니 그 사업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라고.」 왜냐하면 요셉 스미스가 이루어 놓

은 일은 100여년이 넘도록 근대의 연구와 비판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진리임을 유감 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상에 이루어 준 복음과 교회는 그를 위한 훌륭한 살아 있는 증명입니다.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요 또한 선견자인 요셉의 사업과 인품을 세 각도에서 평가해 본다면:

첫째, 그를 알게 된 사람은 그를 기쁘게 받아 들어서 그의 열렬한 제자가 되고자 했다는 점,

둘째, 그를 신비의 수수께끼로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풀 수 없노라고 고백한 점,

셋째, 첩첩이 쌓인 그의 적대자, 원수들, 그를 이단의 이단자로 거짓 선지자 이상으로 대접했던 자들은 그가 없어져야 세상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여겼고 그의 사업을 온전히 파괴하려 하였으며— 그래서 기겁케 지옥으로라도 몰아내겠다고 극성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데 첫째가 되고 싶음을 고백합니다: 그를 믿고 가장 높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 들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영감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를 믿음에 있어서, 내게 그분은 능한 영이였으며 그것이 선천적인 덕과 이지의를 그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상하

고” “선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강하고 위대하고 능한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감을 더하여 주셨으며 이로써 그는 날카롭고 바른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내가 책을 통하여 그에 관한 것을 읽기 오래 전에 이미 나는 직접 그에게서 듣고 심취하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에 출판된 혹은 그를 칭찬하고 혹은 비판한, 그에 관한 기사를 읽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그의 영웅 주의를 쓰기도 했고 그의 두려움 없는 용기, 형제를 향한 끝없는 그의 사랑, 하나님과 거룩한 것에 대한 그의 경건심, 순교까지를 불사한 그의 고매한 지조 등을 썼습니다. 이 모두로 하여 나는 그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만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의 담대한 결단에 크게 감화되었으며 그의 놀라운 투지는 그를 범인의 대열에서 위로 올려 세웠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서부터 나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랑했고 배움이 없었으면서도 유창했던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강한 유대의 띠를 그와 연결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것은 솔로몬의 때의 “결함”이나 “불완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그런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나의 판단과 지혜가 자라

인간보다는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새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에게서 그의 한계를 보았고 행함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약점과 경박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설명한대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편견과 감정을 가진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그의 온화한 인품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그의 겸양의 덕을 들어나게 했고 그것은 그에게로 향한 나의 마음에서 귀한 것을 털어내는 대신 귀중한 것들을 수없이 쌓아 주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그가 영원히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어리석음”을 닮으신 하나님은 그가 종으로 쓰셨던 요셉 스미스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 그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나에게 있어서 그는 지극히 높이신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영원히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그에 관한 또 다른 지식의 근거, 즉 그를 수수께끼로 혹은 원수로 여기는 자들은 그대로 억측하고 고함치게 버려둡시다. — 뭐라고 하든지 그는 저들의 권세 위에 계시며— 그의 기억을 불쾌한 것으로 칠하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한 질서 속의 그의 위치를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그를 욕되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업은 땅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된 날

도일 엘 그린

● 1830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뉴욕주 세네카군의 통나무로 지은 농장의 집이었습니다.

있었던 일 :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됨.

여하한 교회가거나간에 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세기 반을 통하여 미국 대륙에는 수많은 교회가 출현했으나 드디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그토록 중대한 의미와 깊은 뜻을 갖고 이 땅에 조직되므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된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자격만 갖춘다면 교회의 정당성을 공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국가의 법으로 공인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아 거룩함

을 입는다면 이는 그의 교회이어야 하며 그의 지시대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브리 5:4)

주님은 그의 뜻을 어린 예언자에게 알리셨으며, 그가 아론이나 역사를 두고 다른 선지자를 부른 것 같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린 예언자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1830년 4월 6일에 있었던 일을 감리하고 사회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스미스 2세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 넷이었습니다. 십년 전부터 주는 그를 준비시

키셨으며 비로서 어린 예언자는 그의 직분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열 네 살의 어린 소년으로 요셉은 과연 어느 교회에 들어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도로 간절하게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시현으로 임하시어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9)

열 네 살 먹은 소년에게 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뉴욕주의 사람들은 몹시 흥분하였고 전혀 용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례가 없

하루의 중대사를 시작하기 전 물몬경의 번역 사업이 진행되었던 피터 휘트머의 농가 다락방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만나고 있다.

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두고 자신을 세상에 들어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세대를,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닫혀졌다고들 믿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고 헌신적이며 이지적이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수십개로 분열된 종파와 저들이 가르치는 서로 다른 교리는 당시에 존재했던 종교의 혼란상을 잘 말해 줍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사의 처음부터 자녀들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인간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일일까요?

사년이 지난 후 어린 요셉은 또 다른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스스로 모로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을 시키시고자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근처 언덕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복음이 기록된 금판이 묻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회복하고 참 교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금판의 글자를 번역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근처 산으로 가서 모로나이가 지시한 대로 요셉은 돌상자에 보관되어 여러 세기를 지나온 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을 들어 내려 할 때 요셉

은 아직은 그 판에 손을 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매년 그 곳에 와서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읍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말일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인도되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53-54)

마침내 요셉은 1829년 4월 7일에 판을 받았고 판에 기록된 글자를 열심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때에 교사를 하던 올리버 카우드리라고 하는 젊은 요셉의 친구가 기록서기로서 요셉의 번역을 도왔습니다. 삼개월이 채 다 되기 전에 번역 완성의 쾌거를 보았습니다. 1830년 이른 봄, 물몬경의 첫판이 기계에서 떨어졌읍니다.

번역을 하는 동안 의문이 생기면 두 젊은이는 주님께 간구했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시를 받았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구절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저들이 성경에서도 읽고 알았읍니다. 그러나 아무도 침례를 받지는 않고 있었읍니다. 저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그는 침례 요한이었읍니다—그의 손을 저들의 머리 위에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한 뒤에 서로 침례하라고 명하엿읍니다.

일이 진전되면서 멜키세덱 신권을 포함한 권능이 일에 필요한 대로 주어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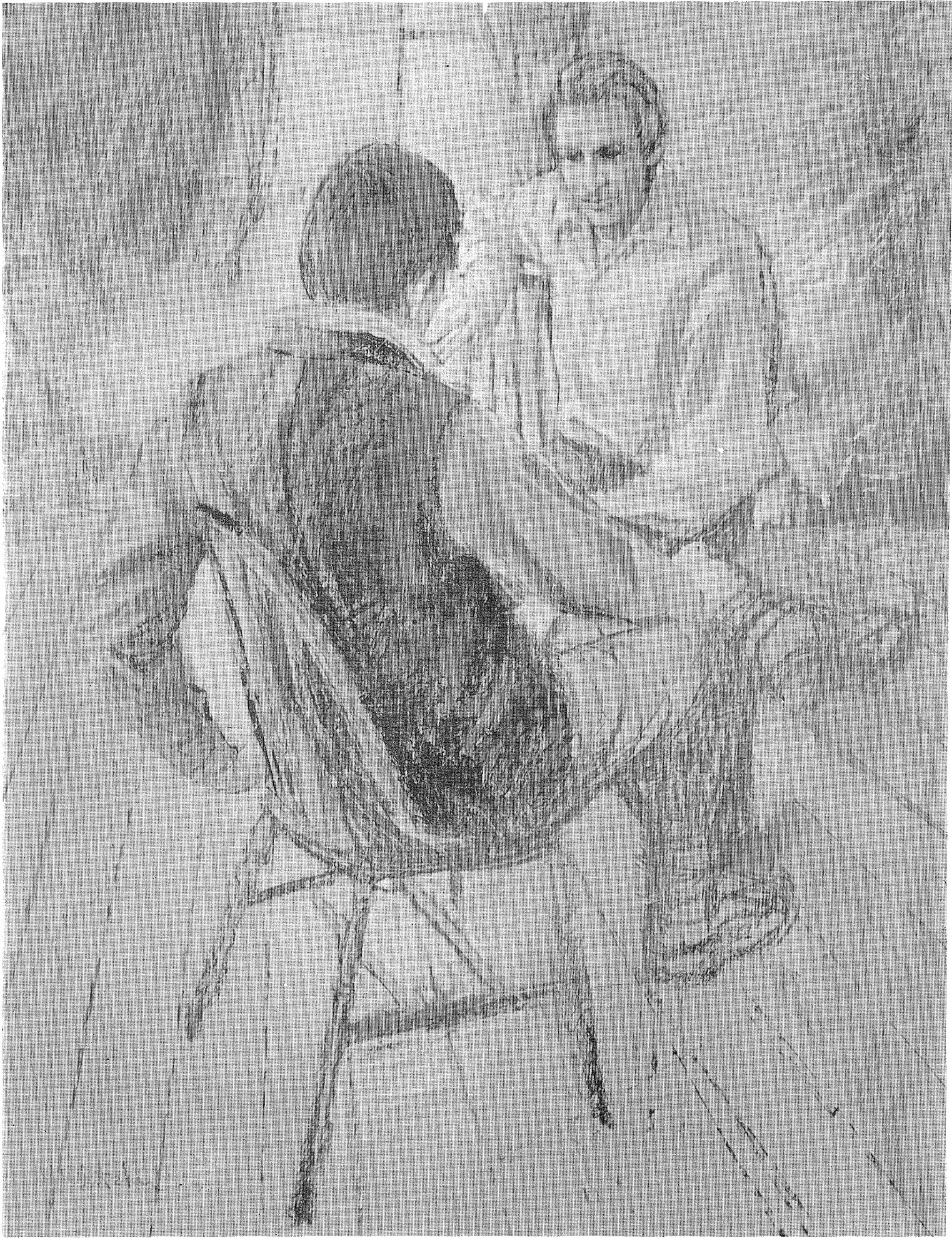
1830년 4월 초 어린 예언자는 현제 교리와 성약 20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읍니다. 이 장을 흔히 “교회 조직과 다스림의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선지자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즉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많은 것을 지시해 주셨을뿐만 아니라 주의 뜻과 계명에 따라 우리가 지상에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조직할 정확한 일자를 지시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20편의 머리말)

예언의 첫 절은 이렇습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지 일천 팔백 삼십 년이 되는 해 넷째 달 곧 4월의 제 6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에 좇아 정식으로 조직 창립되었느니라.”

“교회가 조직된 날”을 주제로 한 이 그림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미술대학에 속한 말일성도 화가 윌리엄 윌티커가 그린 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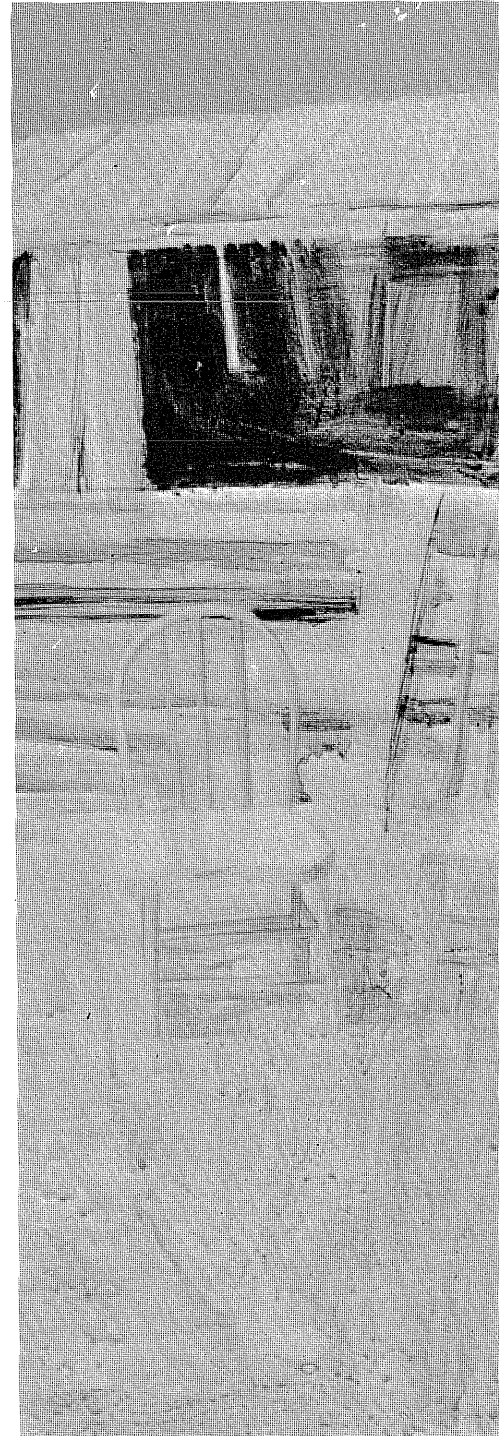
약 8개월 전에 윌티커 형제는 이 그림을 그리라는 임명을 받았으며 임의로 그림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는 1970년도의 거의 대부분의 여름을 그림과 씨름했으며 너댓 차례에 걸쳐 그림을 변경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재치와 화술은 당시의 분위기를 아주 흥미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도된 어느 그림보다도 이 의미 깊은 날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역사 및 종교 담당인 리처드 로이드 앤더슨 교수가 그림 주제의 고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1세가 교회 조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휘트머가에 도착하고 있다. 예언자의 아버지는 거룩한 숲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듣고 믿은 사람이다.



이 계시를 읽고 크게 감동받지 않는 자가 없으며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긴요한 것을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건설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계시에는 이미 어린 요셉에게 주님께서 전하신 지식과 지시를 재확인하시거나 강조하신 곳이 많습니다.

이 계시에 전달된 보배로운 지식과 진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자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며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2.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

3. 오직 인간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4.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신다.

5.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육욕적이고 간악한 존재가 된다.

6.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7.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교성 20 : 25)

8.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죄 사유함을 위한 회개의 원리를 세워주셨다.

9. 사람이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 기도가 주어짐)

10. 어린 아이가 침례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이”가 되어야 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11. 침례를 받은 자는 권능 있는자의 안수로서 성신을 받고 회원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2. 교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능 있는 자로부터 합당하게 부름을 받아 성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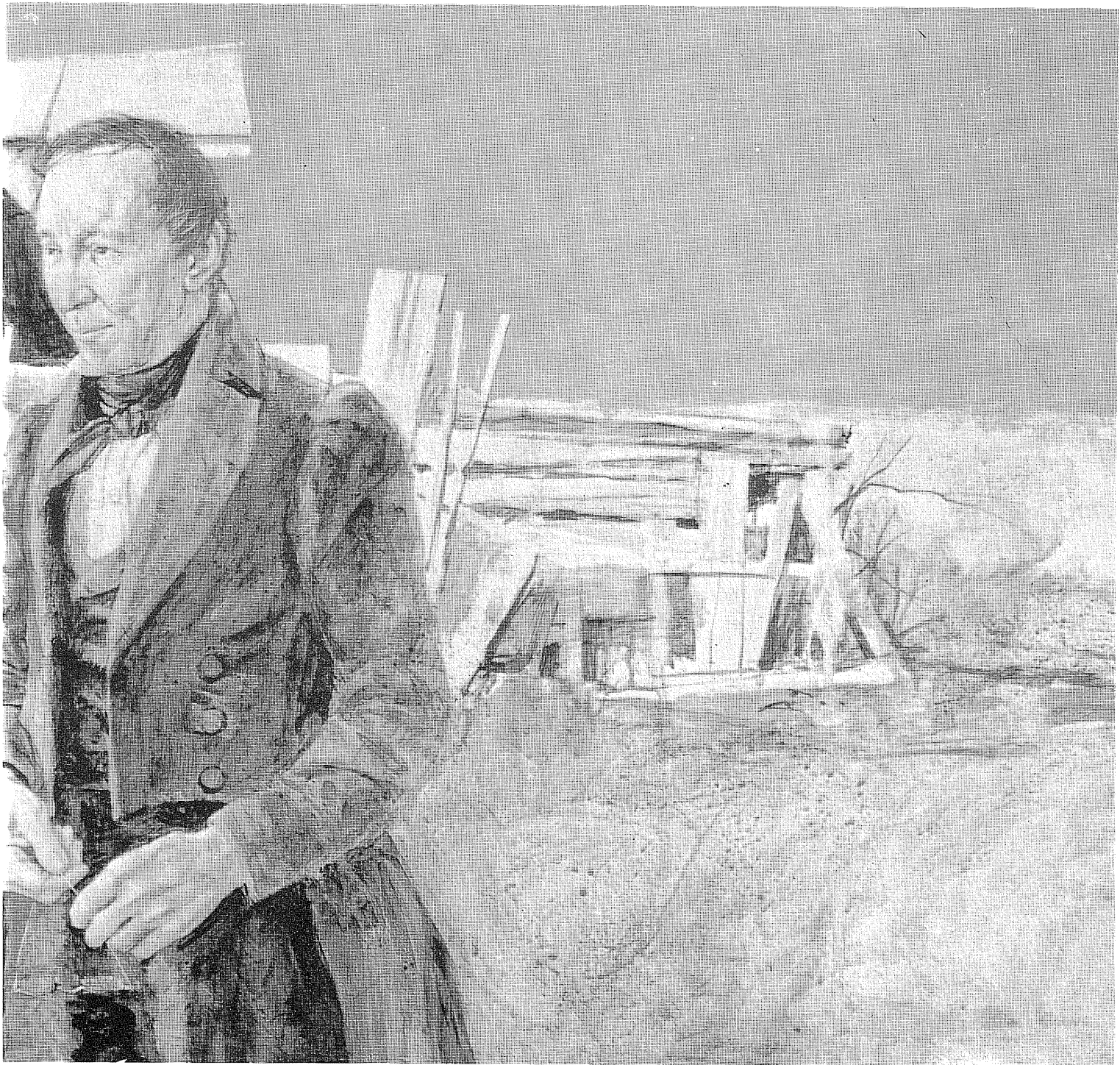
13.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선지자와 교통하시며 선지자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에는 천사를 보내신다.

14. 물문경은 하나님의 권세로 계시되고 번역되었다.

15. 물문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16. 물문경의 출현은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요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증거한다. (교성 20 : 11-12)

17. 믿고 신앙을 가지며 의롭게 행하는 모두는 영생을 얻는다.





예언자 요셉의 아내 엠마 스미스와 예언자의 형 하이람의 아내인 에루샤가 모임에 도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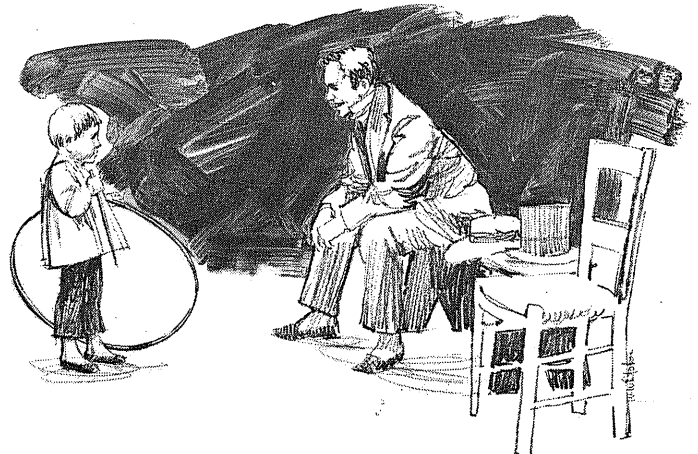
18. 교회에서는 만장 일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19.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회원의 임무를 설명함.

20.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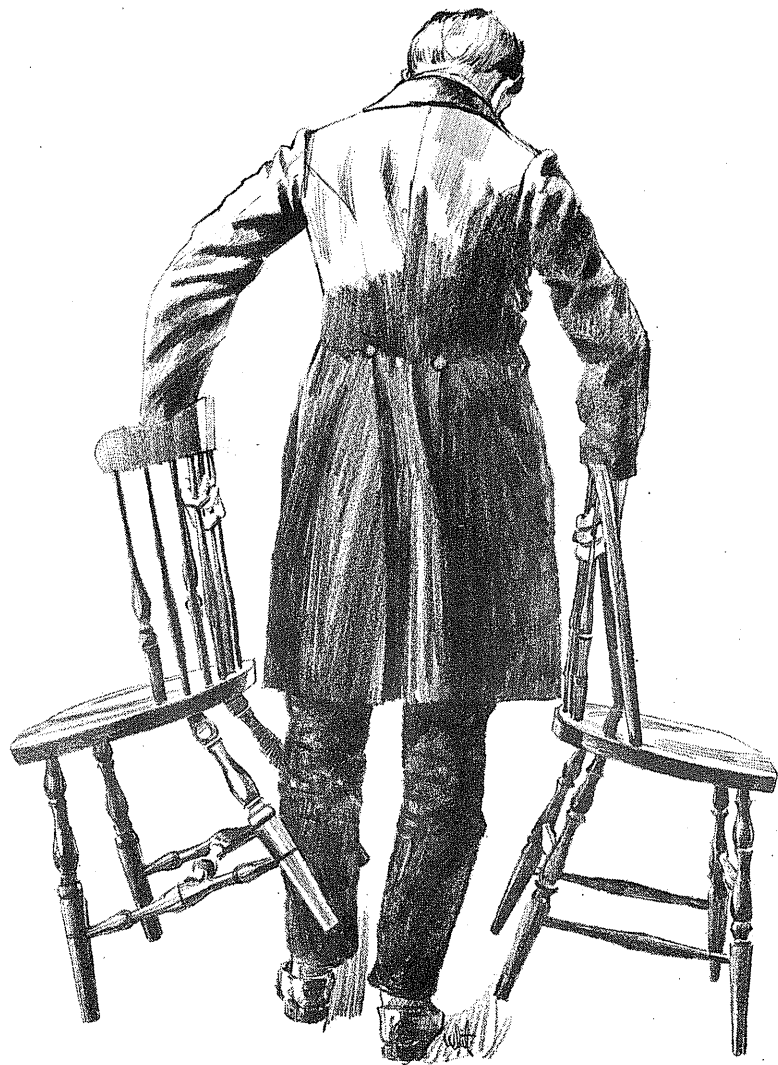
21. 성찬 축복 방법과 이 때에 쓰이는 기도문이 주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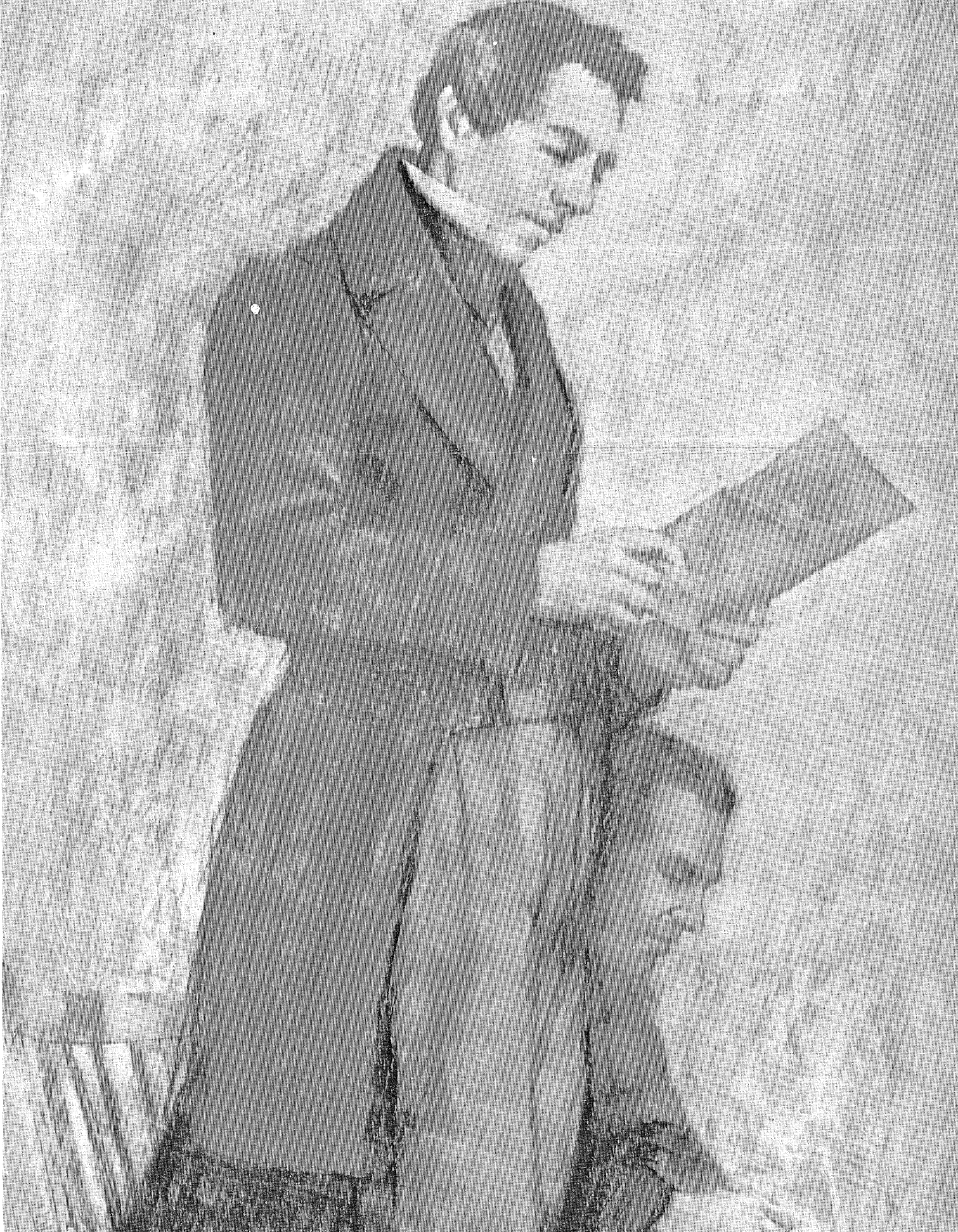
거의 일년 전인 1829년 6월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교회 조직에 따르는 절차를 알려 주셨읍니다만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교회 기록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 성임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같은 직분에 성임해야 했다. 그런 후에 수시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때에 다른 사람을 성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형제들을 함께 모아 침례를 준 다음에 필요하게 될 때까지는 의식을 연기하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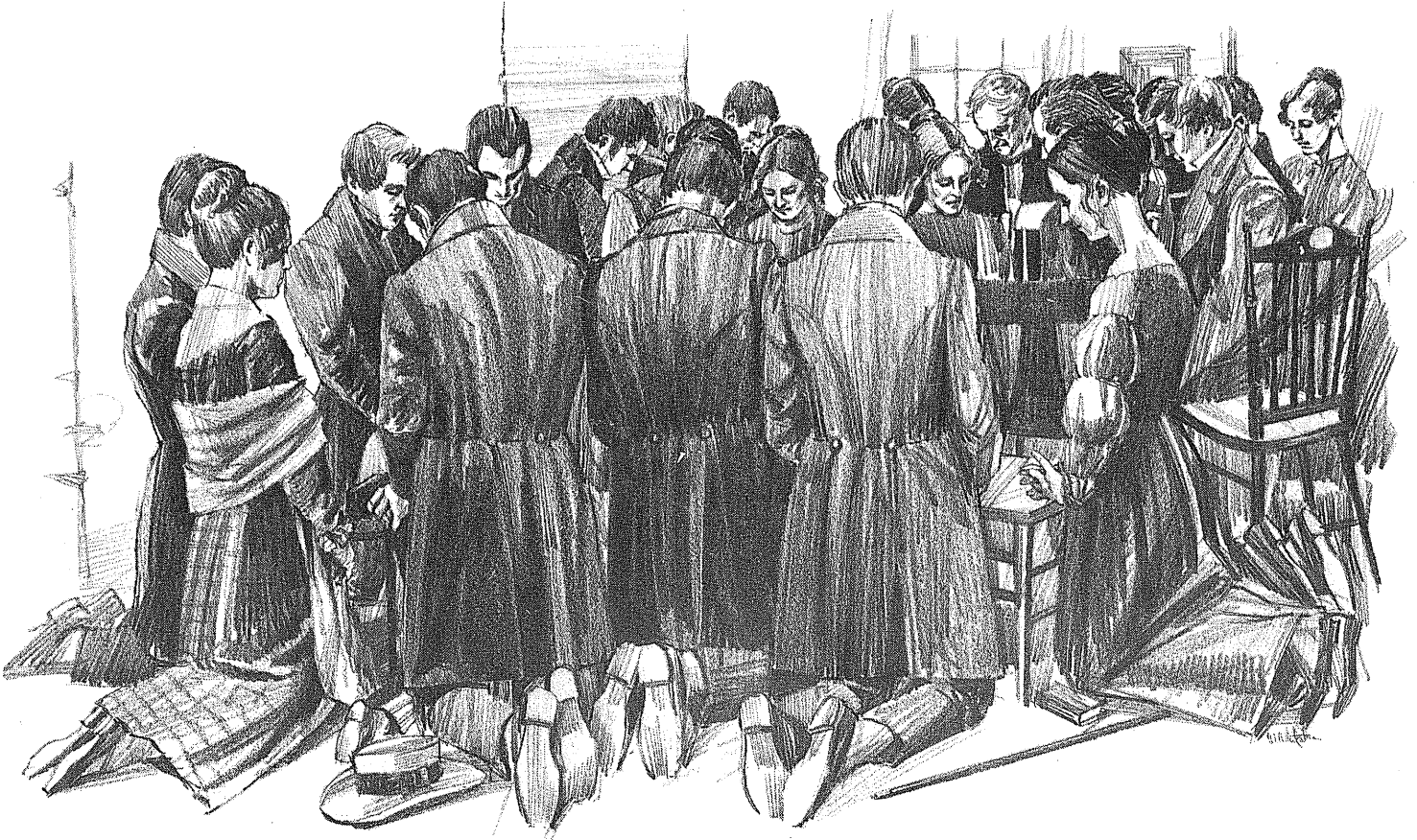
물론경의 세 전증인의 한분인 데이비드 휘트머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한 여섯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24세의 요셉 스미스가 조직하는 일을 관리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도와 물문경 번역의 기록을 맡았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있다.

거룩한 모임이 기도로 시작되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는데 참가한 6명과 30명 미만으로 간주되는 특별 초대 손님.



셨고 합당한 자가 생기면 서로 성임하되 우리를 회중이 영적인 교사로 받아들이는가를 거수로 문도록 하셨다. 아울러 우리는 떡을 축복하여 저들과 함께 뜯어 먹고 포도즙을 축복하여 저들과 함께 마시라고 하셨다. 그런 다음에 제명에 따라 서로 성임한다. 그 다음에는 영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불러 성임한다. 그 다음에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안수한다.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교회 기록사 1:60-61)

정하신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모임에는 요셉과 올리버 외에 넷이 더 왔으며 “우리 나라의 법에 좇아 교회의 조력자가 되기로 선택되었습니다.”(교성 20:1) 교회 역사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은 요셉의 형제인 하이라프 스미스와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교회 조직의 모임을 위하여 그의 집을 내준 이의 아들인 데이비드와 피터 휘트머 2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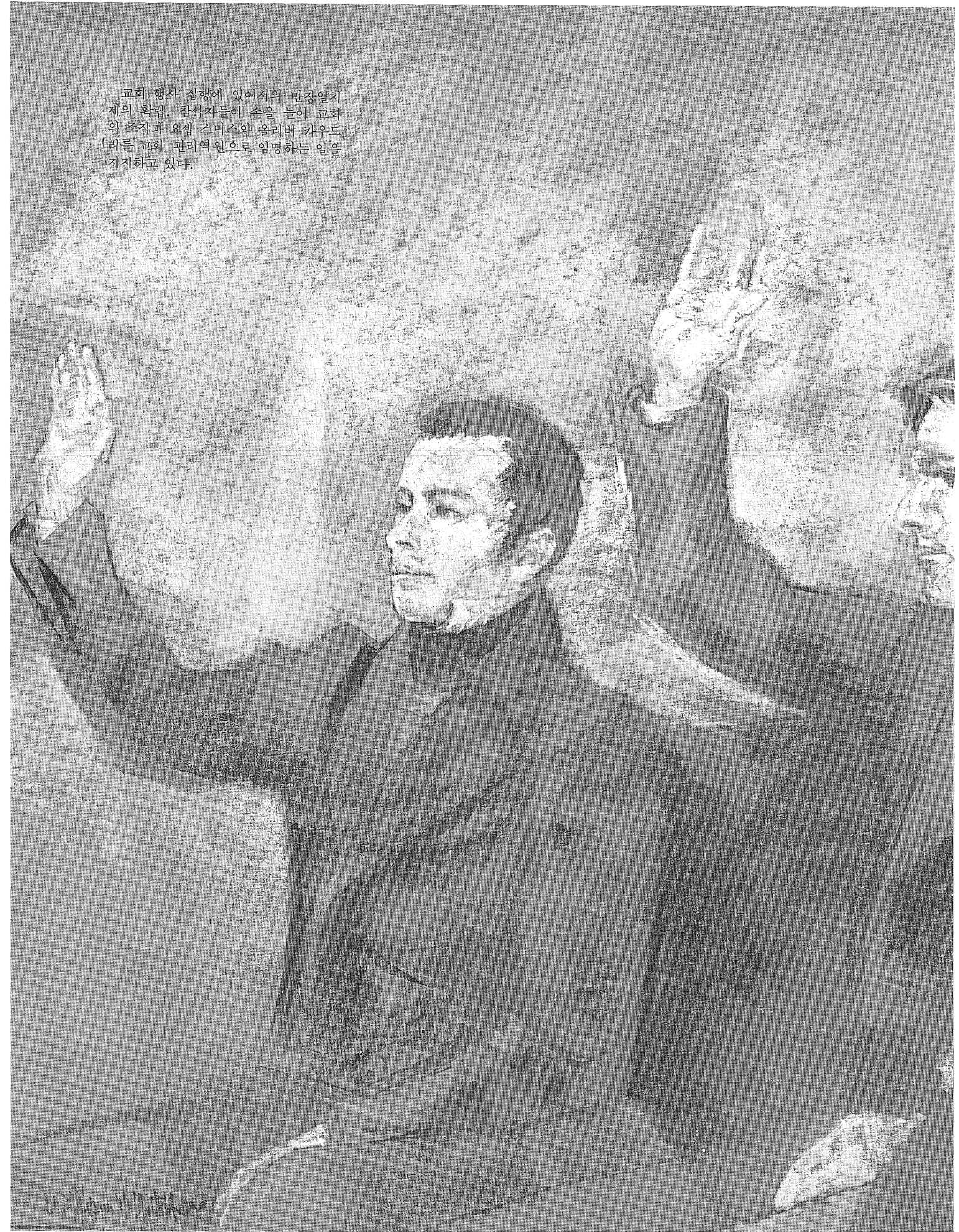
이 이외에도 몇몇 친구들이 참석의 초대를 받아 숫자는 삼십여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언자의 아버지인 요셉 스미스 1세와 예언자의 어머니 루시 맥스미스도 끼어 있었습니다. 두분 다 요셉의 이야기를 믿으셨고 일의 시초부터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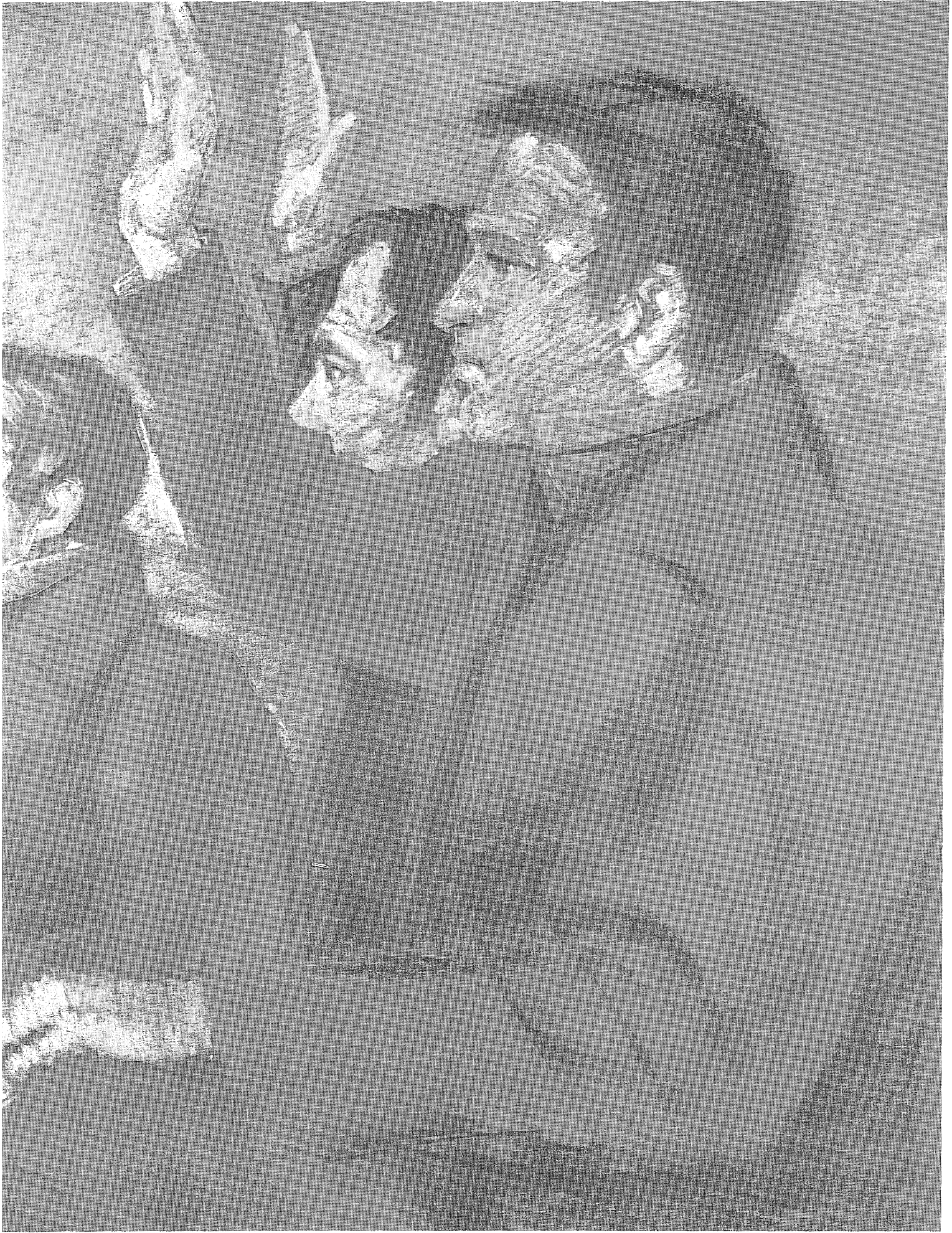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회의록이 없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어떻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젊은 예언자가 모임을 질서 정연하게 그 목적에 맞추어 이끌었고 모인 사람들과 거룩한 기도를 함께

교회 행사 집행에 있어서의 만장일치
제의 확립,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교회의
조직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
를 교회 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일을
지지하고 있다.



W. H. ...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 주의 교회를 다시 세움이 마땅하다고 여기시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과 그날에 있었던 일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였으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행사로서는 만장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모인 회중이 교회를 조직하여 갖기 원하는가를 묻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회중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 지지하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도 회중은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올리버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였고 그 다음에는 올리버가 요셉을 역시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인 성찬이 축복되어 이미 침례를 받은 회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주님의 종에 의하여 베풀어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제일 처음의 거룩한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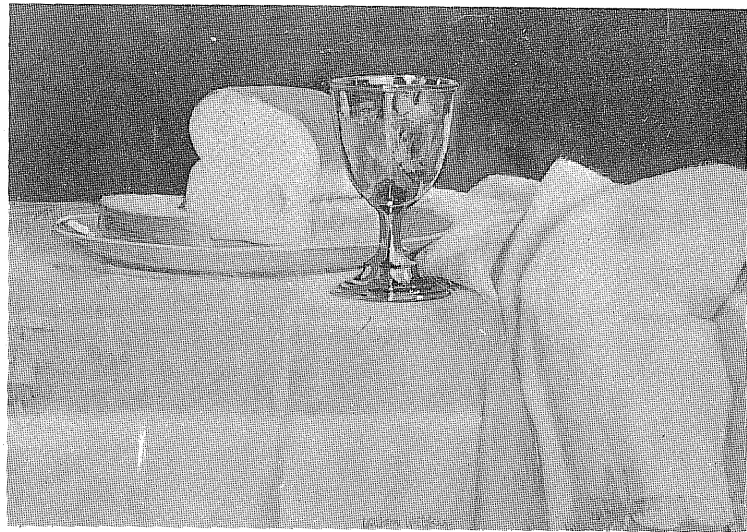
그날엔 침례식도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근처의 세네카 호수에서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역시 분명치는 않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참석한 모든 교회의 회원의 머

요셉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고 있다. 그 다음엔 올리버가 요셉 스미스를 성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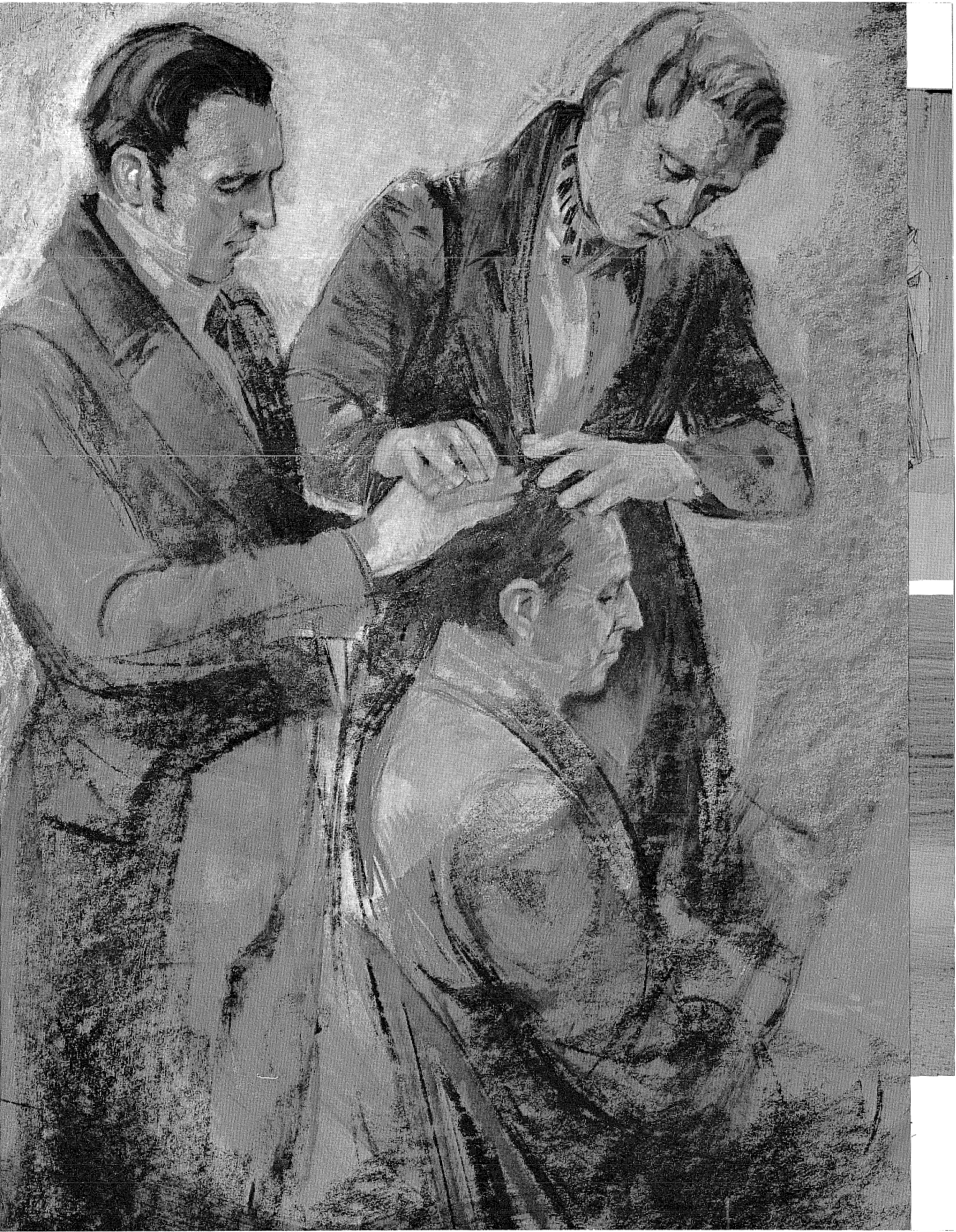




리 위에 손을 얹고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다.”(교회 기록사 1: 78)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은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을 얻어 바로 교회에 접근했고 저들을 우리는 교회에 받아들였다. 그 외에도 나의 부친과 모친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로써 나는 크게 기뻐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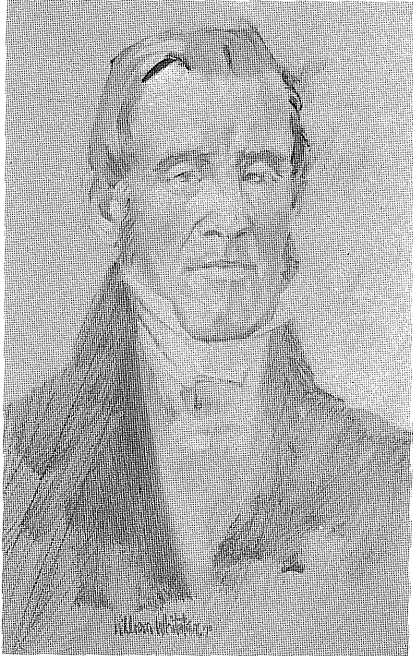


주님의 성찬이 교회 회원에게 관리 전
달됨. 축도는 계시로 전달받음.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요셉의 부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고 있다.

물문경 세 건증인의 한분인 말틴 해리스, 그는 물문경 첫 출판 자금인 3,000불을 구하고자 그의 농장의 일부를 담보로 잡히다.



피터 휘트머 1세, 그는 어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푼 사람이며 예언자에게 물문경을 번역할 방안을 주었고 그의 집에서 교회를 조직하게 했음.

니다. “보라 너희 가는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 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이르키리라.”(교성 2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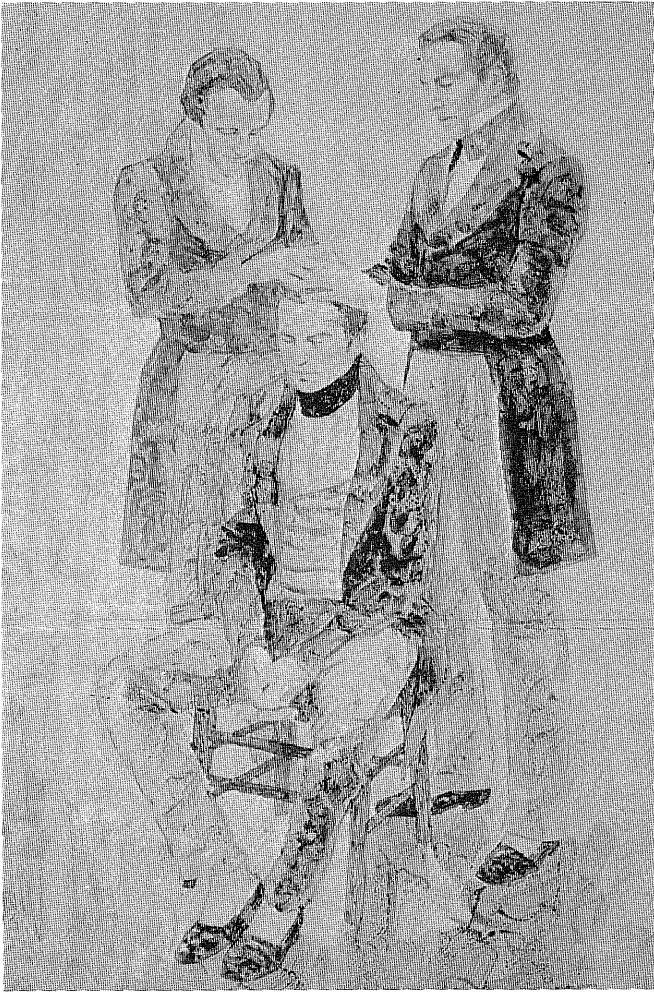
예언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데로 다른 형제들을 신권의 직책에 불러 성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령의 축복과 권세를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말일에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대로 조직되었고 신약에 기록된 교회의 절차와 부합되도록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기쁜 확신을 얻고 폐회했다.”(교회 기록사 1 : 79)

1830년 4월 6일로부터 일백 사십년이 지났습니다. 여섯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현재 회원수 삼백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에 충실한 회원은 1844년 6월 27일에 순교한 요셉에 관하여 기록한 뜻에 동의하며 그의 거룩한 업적을 간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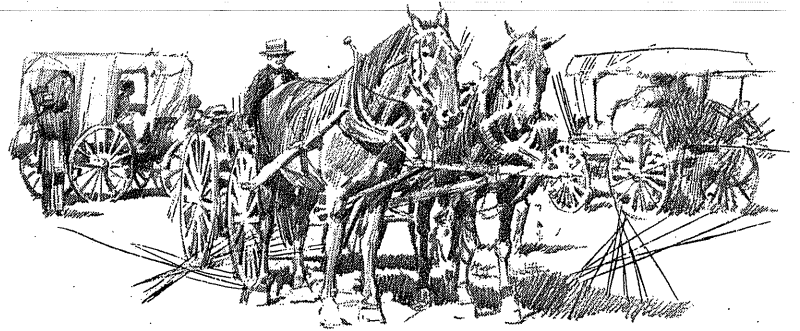


예언자의 모친 루시 맥 스미스 여사가 간증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 주님의 선지자요 선견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성 135 : 3) ○



요셉과 올리버가 피터 휘트머를 성임.
여러 사람이 영의 지시에 좃아 신권의
여러 직책에 성임되다.



교회 조직을 위하여 모인 다섯 젊은이
앞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로부터
제시를 받고 있다. 이 제시가 바로 교리와
성약 20편이다. 이 제시를 통하여 주
는 관리 역원을 인정하심을 알려 주셨다.



용기의 밤

마저리 에스 켄넨

● 어둠이 나부 시를 뒤덮고 있었으나, 주변이 불안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저기 등불로 밝혀진 창이 빛나고 있었다. 닭이 회를 치고 어디선가 개가 길게 짖었다.

열 한 살 먹은 매리 앤은 그 집 문 앞으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침대 머리를 팔꿈치로 집고 일어나 앉았다.

“프랫 자매, 요셉과 하이람이 돌아갔습니다. 카테이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해 살해 되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매리 앤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겨우 숨을 내쉬면서 그는 밖으로 뛰어 나가 소식을 전한 사람과 닳으나 그러나 간절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발로 막 마루바닥을 잡고 내려섰을 때, 문이 닫혀지고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을 밖으로 한 채 안으로 문이 잠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곧장 엄마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 갔다. 그리고 들은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셨고, 매리 앤은 그렇게 되기를 기원했었다. 그가 아직 갓난 아이였을 때 그의 친아버지는 급작스럽게 돌아 가셨고 어머니가 펠리 피 프랫¹과 결혼하신 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 그 아버지는 선교사로 나가 계신 것이다.

잠옷이 눈물로 젖게 되자 그는 예언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던 때를 기억했다. 때는 매리 앤의 가족이 영국에서 돌아 오던 때였고 그때 예언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많은 개종자들이 그들과 함께 배로 돌아 왔으며 모두 요셉 스미스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아마 단박에 그를 알아볼 거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쉽게 군중 가운데서 예언자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매리 앤은 그 사람들에게 나부 군단²을 이끌고, 말을 타고 서있던 예언자의 모습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리고 장엄했던가를 개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또 매리 앤은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커틀랜드 신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와 인디안들에게 나부의 숲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모습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했다.

매리 앤은 나부 시가 가까워지면서 물에 떠있는 커다란 집덩이같은 기선을 그 기선의 작은 기관이 얼마나 힘차게 밀어 젖혔으며 미시시피 강에 떠있는 얼음을 어떻게 헤쳐왔는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일행이 땅에 오르자 많은 사람

들이 나와서 이들 여행자를 영접하였다. 즉시 매리 앤은 예언자를 알아 보았다. 그는 배 위로 올라와 선실로 들어서서 펠리 프랫을 얼싸안았다. 그리고는 차례로 가족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다.

예언자는 6척이나 되는 몸집이 큰 사람이었다고 그녀의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매리 앤의 키는 그의 허리에 밖에 미치지 않았으나 예언자는 허리를 굽혀 그녀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런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매리 앤의 작은 동생들을 무릎 위에 올려 앉히셨다.

“자, 펠리 형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돌아 오셨군요.”

그는 작은 펠리와 나단을 얼싸안았고, 그때 그의 맑고 푸른 큰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그의 볼로 흘러 내렸다. 매리 앤은 어른이라도 저들이 기쁨에 충만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행복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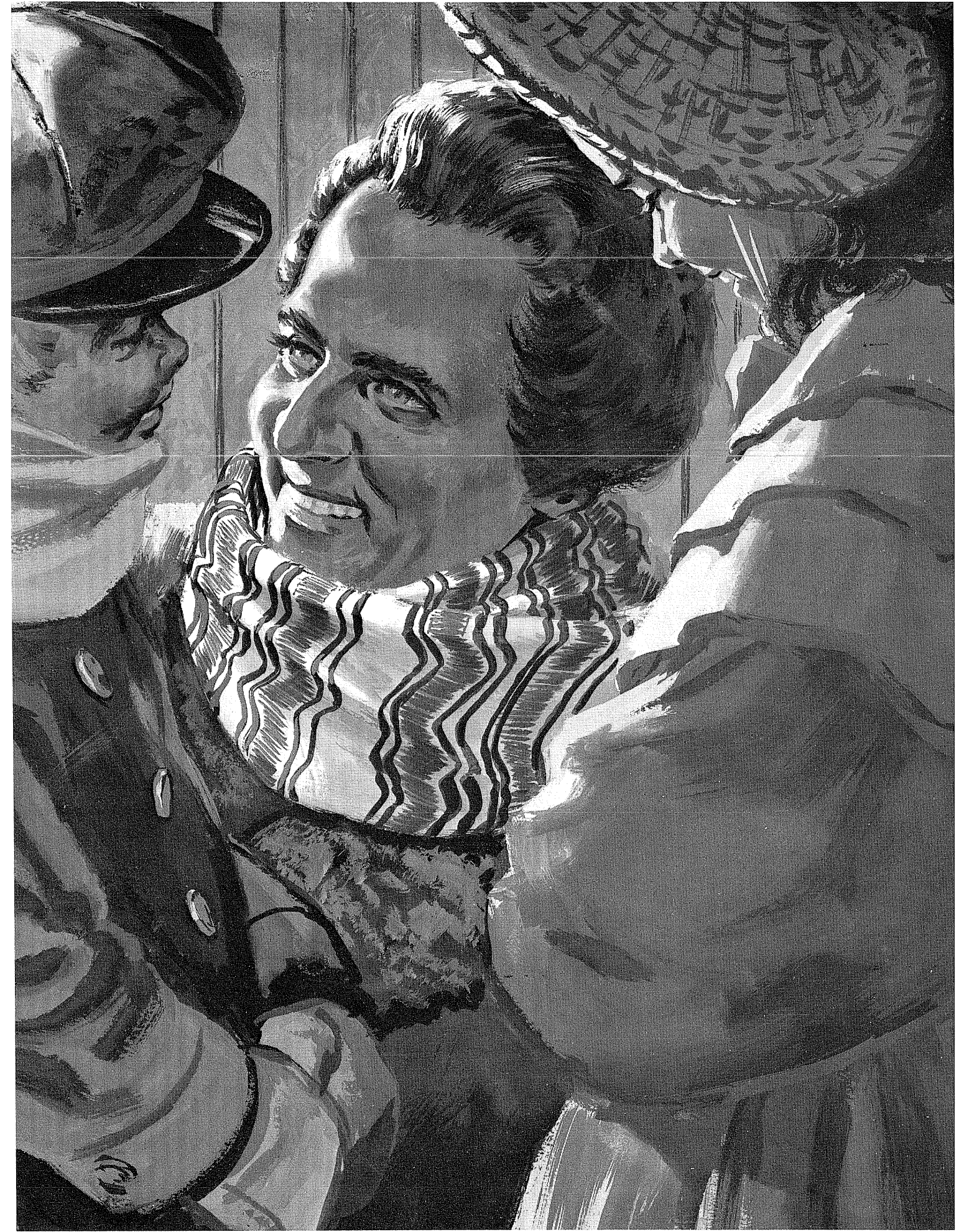
예언자가 우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예언자에게 응대했었는가를 매리 앤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스미스 형제, 우리들이 돌아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감으로 생각하시다니 아마 내가 돌아가야 할까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은 웃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예언자였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펠리 형제, 가족을 모두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갑시다.” 일행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고 있을 때 매리 앤은 자기가 애를 써서 영언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2. 나부 군단—1840년 12월 일리노이 주에서 조직된 독립 민병대. 군단장은 중장 요셉 스미스였다.

1. 프랫, 펠리 피이 십이사도 보조, 1807—1857



작은 동생 수산이 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리 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흐트러지고 말았다. 눈물자국이 남아 있었는데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아직도 합창대에서 노래를 하고 계신 것 같았다.

어머니가 노래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매리 앤은 신전 옆 숲 속에서 그가 참석했던 어떤 모임을 다시 기억했다. 합창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신 예언자는 손에 찬송가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매리 앤을 부르신 다음 단 위에 올라와서 앞줄에 앉으라고 하셨다.

“너도 노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나는 일이었다. 나무에 있는 어린이들도 선지자를 그리워 하겠구나!

“엄마, 선지자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두들 그의 안전을 빌고 있었지만,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셨지.”

“내 생각엔 그분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 3주전에 물홀랜드 로의 숲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예언자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모두 다음 주 일학교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그때 그분이 말씀 하시기를 ‘글쎄,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지. 그러나 스티븐 고다드 형제님이 이곳에 오셔서 모임을 관리해 주실테니까.’ 라고 하셨는데 엄마, 그분이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세요?”

매리 앤의 어머니는 작은 수산을 안은 위에 다시 매리 앤을 가깝게 끌어 안으셨다. 매리 앤의 동생 수산은 엄마의 품안에서 평화롭게 잠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매리 앤의 그 질문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해가 점점 밝아져서 하늘을 밝히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고, 장미와 들국화의 향내를 맡았다. 그리고 이른 아침의 미풍이 밀어닥치는 것을 느꼈다.

얼마가 지난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아서 그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알게 되었지. 그분이 처음으로 너의 손을 잡고 악수하였을 때 너는 수산보다 별로 크지 않았었다. 또 언젠가는 보트를 타고 오는 동안 네가 지금 이 수산이 내 팔 안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아빠의 팔에 안겨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예언자는 너의 발을 잡아서 그분 무릎에 놓으시고는 네가 더 편안하게 쉬도록 해 주셨단다.”

“그건 저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네가 수산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거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겠어요!”

매리 앤은 마룻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머니 무릎에 안겨 있는 작은 그의 동생의 졸리운 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요셉 스미스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걸요!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하늘에서 수산과 나는 다시 한번 예언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훌륭한 신앙

실화를 루실 씨 리딩이 옮김

● 밖에는 폭풍이 불고 있었으나 왜 낮에 온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주었는가를 설명하시는 낮은 아버님의 음성만이 토막집 안을 울렸다. 작은 마을엔 온통 병이 나돌았고 밀가루가 손이 닿는 최상의 약인듯 여겨졌다.

아주 신중하게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상한 “겨울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다. 들의 곡식은 흉작이었지만 이웃의 주문을 받고 만든 마차 값을 밀가루로 받았고 서쪽 해안을 따라 필모어로 지나가는 개척자들을 상대로 만든 마차 값도 밀가루로 받았던 것이다.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 몇번 쪄면 없어

질텐데, 이제는 밀가루를 더 내지
말아요, 밀가루를 더 내면 당장 아
이들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요.”
모두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
고 있을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
다. 앉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이웃
사람이 밀가루 한 컵을 얻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밀
가루를 내 주시면서, “신앙을 굳게
가집시다. 주가 준비해 주실 게요”
라고 하셨을 때 막내동이기도 그 남
자의 얼굴에 퍼지는 감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몇분 후에 또 문을 두드
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문을
여시자 밖에 서있던 젊은이가 급히
안으로 들어 왔다. 그가 “아, 칼링
형제님,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밀가루가 꼭 있어야 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가 거절하시
지 않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고 이내 아버지는 어
머니를 팔로 감아 안으시고는 식구
들더러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고 하셨다. 나부의 그 출던 겨울에
안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릴 때 토막집 안에는 따듯
한, 좀 특별한 온기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또 이 가정과 이웃을 위
하여 음식, 특히 밀가루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하셨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자 아버지
는 어머니에게 숟갈로 통을 긁어
그래비를 만들 밀가루를 마련해 보
라고 하셨다. 그래비를 하고도 남
을 밀가루가 남은 것을 보시고 어
머니는 놀라셨다.

그러나 얼마 후에 더 행복한 일
이 벌어졌다. 가족이 모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 서있던 사람은
아버지가 마차 기술자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러 왔다
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
였다. “제게 밀가루가 20톤이 있는
데 이것으로 마차 값이 되겠습니
까? ○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

1877—1970

● 93세의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미망인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 여사가 1970년 11월 14일 토요일에 쏘트레이크 시 유타 호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들의 69회 결혼 기념을 축하한 바로 다음인 1월 18일에 작고하셨었다.

대관장님의 “사랑하는 애인이며 부인”으로서 오랫동안 대관장님 곁에 함께 하셨던 부인에 대하여 공적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그분은 1877년 6월 23일 오 에이치 리스와 엠마 로빈 리스의 딸로 쏘트레이크 시에서 탄생하셨다.

그는 학교 교사를 지망한 젊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헌스빌로부터 유타 대학에 유학을 위하여 쏘트레이크로 왔을 때 맥케이 대관장을 만났다. 유타대학 재학 시절에 두분의 우정은 꽃피었으나 1897년 데이비드가 졸업한 다음 결혼하기로 했던 계획은 데이비드의 영국 선교사 부름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얼마 동안 엠마는 대학 과정을 계속하여 1898년에 졸업하였고 두분은 1901년 1월 2일에 결혼하였다.

엠마 레이는 옥든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교회 보조조직 역원으로 일하면서 헌스빌 근처의 농장 일을 돌보았으며 후에는 쏘트레이크로 돌아왔다.

1906년 남편이 12사도로 부름을 받자 맥케이 자매는 남편이 임무를 맡고 여행을 하여 집을 비우는 동안 집에 남아 일곱 자녀를 홀로 돌보곤 했다. (자녀중 하나는 유아로 사망했음)

맥케이 대관장님이 자녀들에게 한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해를 두고 한결같이 너희들은 어머니가 온전하게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알뜰한 사랑과 헌신이 그리고 그의 영감과 충성스런 협조가 우리가 이룬 성공의 원동력이었음을 너희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밝히고 싶다.”

가족이 성장하면서 맥케이 자매는 더욱 남편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1930년 10월 반년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1951년 4월 9일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되었다. 맥케이 대관장의 임기 동안 두분은 온 때륙과 바다의 섬을 두루 여행하셨다.

맥케이 자매의 유족으로는 네 아들 데이비드 로렌스, 로린 아아르, 에드워드 아아르, 로버트 아아르가 모두 쏘트레이크에 살고 있으며 두 딸 중 텃셀 에이치(로우 진)블루드 여사는 시카고에, 콘웨이 에이(엠마 레이)애쉬튼 여사는 쏘트레이크 시에 살고 있다. 손자는 모두 22명이고 증손자는 25명이다. 장례식은 신전 광장 회당에서 11월 18일 대관장단의 관리로 엄수되었다. ○



돌프 비이 아이색슨

1898—1970

십이사도 보조 1961~1965, 1970
대관장단 보좌 1965~1970
관리 감독단 제일보좌 1952~1961

● 돌프 비이 아이색슨 장로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곤 했다. “완성하지 않고도 버려둘 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교회 일은 아닌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의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잘 들어나 있으며 그의 영적인 정열과 육체적인 정열이 함께 엮여있다. 아이색슨 장로는 복음의 원리에서 그의 다양한 요구와 열의를 감당하게 하는 힘을 얻었다. 운동에서, 공부에서, 사업에서, 국사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도자로서.

아이색슨 장로는 1898년 9월 6일 중앙 유타의 작은 농촌 에브라임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조부모님들은 유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개척자였던 부모 말틴 아이색슨과 매리 빌 아이색슨으로 부터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

젊었을 때는 뛰어난 운동 선수였던 그는 에브라임에 있는 스노우 아카데미(현 스노우 대학), 브리검 영 대학, 유타 농과 대학(현 유타 주립 대학)을 거쳐 버클리의 칼리포니아 대학에서 수업하였다.

박스 엘더 카운티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플라 모간 존스를 만나 1920년 6월 16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결혼 후에 그는 교사로, 코치로 교장으로 그리고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여러 학교의 이사로 일하였다. 그는 후에 유능한 보험회사 전무가 되었고 전 미국의 최우수 보험 관리인으로 선

정되기도 하였다.

아이색슨 장로의 교회 봉사 및 사회 봉사는 특기할만한 것이었다. 그는 교회의 역사 유적 위원회 회장, 브리검 영 대학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 교회 교육 임원회 부회장, 유타 주립 대학 운영 위원장, 유타 대학 대학 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의 봉사 활동으로 그는 미국 교육 행정관 특별 고문, 미국 대외 원조 고문, 유타주 리틀허버 관리국 의원 등을 역임하였고, 14년 동안은 유타 심포니아 책임자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사 사장으로, 데저렛 출판사 부사장으로 그리고 몇몇 병원의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아이색슨 장로는 1946년 12월 12일 관리 감독단의 제이보좌로 지지되었다. 1952년 4월 6일에는 관리 감독의 제일보좌가 되었다. 1961년 9월 30일에는 십이사도 보조로 임명 지지되었고, 1965년 10월 28일에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을 받아 성별되었다. 작년 1월 맥케이 전 대관장님의 서거와 함께 그의 보좌 직에서 해임되었다.

1955년에 스노우 대학 강당에서 있었던 공공 모임에서 맥케이 전 대관장님께서 유명한 연사를 소개하는 중에 아이색슨 장로를 첫째로 꼽으셨다.

“제가 보니”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이다.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이색슨 감독이 걸둔 성공의 근원

은 대략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조상에게서 물려 받은 강한 인품과 고매함, 둘째는 그가 이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살면서 얻은 체험과 훈련, 셋째는 스스로 노력한 그의 근면과 정성입니다.”

관리 역원으로서 아이색슨 장로는 세상 여러 곳의 교회를 여행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그의 따뜻한 온정과 열의를 크게 인정받았으며 환영받았다. 이 지역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성인 아론 신권반에 대한 열의 때문에 성인 아론 신권 운동을 크게 전교회 단위로 진척시켰다.

아이색슨 장로의 종말은 복된 것이었다. 비로서 그는 최근 병으로, 쇠약한 건강으로도 떠맡았던 공사간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중에도 그는 제반 교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었다.

아이색슨 장로는 1970년 11월 9일에 별세하셨다. 장례식은 이틀 후 신전 광장에서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의 인도로 집행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을 비롯하여 따님 로얄(조이스) 트라이프와 아드님 리처드 에이 아이색슨 그리고 손자 아홉에 형제 네분과 자매 한분이 계시다.

아이색슨 장로의 교회에 대한 대단한 정성은 당분간 교회 행사에서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완성하지 않고도 버려둘 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교회 일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신 그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겠다. ○

찬송가

우리 영혼의 양식

선교부장 서 헌 보

●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때때로 찬송가를 꺼내 한장씩 넘길 때 펼쳐지는 노래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말씀을 되새겨보면 감탄을 아끼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배워 찬송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성 25 : 12)

총관리 역원의 한분이신 스티얼링 더블류 쉘 장로는 “위대한 소유의 힘”이라는 글에서 여러 때나 경우에 알맞은 찬송가가 있다는 말씀을 하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하여 이중 몇 가지를 들어 가사가 우리들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면 관계로 제가 고른 찬송가를 전부 다 실지 못하니 여러분의 찬송가에서 찾아 완전한 가사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기 소유의 찬송가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낮도 다간 이 저녁에”를 부르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낮도 다간 이 저녁에 황혼의 그림자
어둔 밤 밀려오나니 함께 거합소서
제 집에 유하옵소서 내 반가운 손님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어 줍소서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어 줍소서

우리는 찬송가에 나타난 기도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성찬을 취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은혜 내려 줍소서
우리 성찬 취할 때 주님 사랑에 편히 쉬리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고이 품어줍소서
만국 소망 주님이여
이스라엘 보으소서

선교사업의 지휘 책임을 맡은 존 테일러 대관장은 선교

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찬송가를 작사하셨습니다.

가라 너 영광의 사자
달려라 하늘 특사
말하여라 하늘 기쁜 소식 가져온 천사
크신 주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여라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는 영감을 받아 진리를 대변할 영원한 고전을 쓰셨습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 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 곳

특히 주님이 탄생하신 때가 되면 구세주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헌신을 약속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필립 부룩스의 영감에 가득찬 시입니다.

오 베들레헬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칠줄 네 어찌 모르냐

윌리엄 파올러는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축복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빛으로 밝히시려 주신 복음 감사하오며
풍족한 그 손으로 주신 모든 축복 감사하오고
즐거 주의 일하고 제명 힘써 우리 지키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 즐거움도다
화평과 기쁨 미소 어디나 깃드리니
세월은 행복하고 풍성뿐일세 나의 집 내 사랑
세월도 행복하다 내 집 내 사랑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할 때 이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굳도다 그 기초 주님의 성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놓인 터
그 말씀보다 귀한 말 또 있으랴
예수 좇는 너희 예수 좇는 너희
안식처 버리고 어디로 가랴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어짐과 축복의 노래로 이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나타낼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밖에도 많은 찬송가의 곡과 가사를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

